

A Study on the Effect of Class Satisfaction on Recommendation to Others in Generation Z's Food and Culture Class

Pyoung-Sim Park*

*Professor, Dept. of Hotel Culinary Arts & Patisseri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ss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commend the course to others among Generation Z students who took the liberal arts course 'Food and Culture' at C College in the first or second semesters of 2024. We analyzed 161 students from six departments, excluding the Department of Culinary Arts.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using SPSS Ver. 23.0. Reliability analysis, t-test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lass satisfac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semester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udent participation and class satisfaction. Third, class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ntion recommend to others. This study provide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elective courses and enhancing the academic satisfaction of Generation Z.

▶ **Key words:** Liberal Arts, Class satisfaction, Intent to recommend to others, Food, Culture, Gen Z

[요 약]

본 연구는 C 대학의 2024-1학기 또는 2학기에 음식과 문화 교양 교과목을 수강한 Z세대들의 수업 만족도와 타인 추천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리학과 학생을 제외한 6개 학과 1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Ver. 23.0을 이용하였다. 신뢰도 산출, t-test, 피어슨 상관계수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1학기과 2학기 간 수업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 참여와 수업 만족도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업 만족도가 타인 추천 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양과목의 질 향상과 Z세대의 학업 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 **주제어:** 교양과목, 수업 만족도, 타인 추천 의도, 음식과 문화, Z세대

I. Preface

1.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MZ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Z세대(Gen-Z)의 식생활은 독특한 특징과 트렌드를 보인다. 이들은 건강, 환경 지속 가능성, 편리함, 사회적 경험을 중시하고 SNS를 통한 공유와 소비가 활발하다[1, 2]. 현재 대학 1~2학년은 Z세대(Gen-Z)로 분류된다. 이들은 전문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에 따라 대학 교양 강좌에 개설된 음식과 문화, 조리과 식문화, 음식과 건강 등 음식문화와 관련된 교양 강좌에 수강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Z세대의 식문화 트렌드(Fine-dining, SNS 공유)와 학습 선호도(체험 중심)를 반영한 음식과 문화 교양 교육 방향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2. The purpose of study

음식과 문화와 같은 교양과목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과 다양한 문화적 소양을 제공하여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 C 대학에서는 2024년 1, 2학기에 각각 87명과 85명의 학생이 공통 교양으로 음식과 문화 과목을 수강하였다. 본 연구는 이 과목의 수업 만족도와 학생들의 타인 추천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교과목의 질적 향상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Z세대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여 기술과 정보에 능숙하며 가치관에 개성이 형성되어 있다. Z세대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메시지나 사진 혹은 영상으로 남기는 SNS 활동이 활발하다. 이 세대의 특징이 식문화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새로운 음식, 맛있는 음식, 유명한 음식에 대한 시식 성취감과 경험을 공유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4]. 조리 관련 전공 대학생이 아닌 비전공 대학생들도 교양 교과목으로 음식과 요리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이런 이유 중 하나이다. 물질과 소통 정보 풍요 속에서 자란 Z세대에게 음식은 식사 이상의 행복 요소이고 요리 과정, 분위기, 음식의 맛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편이다. Z세대의 식문화는 질 높은 정찬의 파인 다이닝(Fine-dining), 말감차림의 오마카세(Omakase), 호텔 식당 등으로 호기심과 가치의 경험 소비에 의미를 두고 있다[5]. 이러한 Z세대의 특징(경험 공유, 디지털 친화, SNS 활동)에 맞춰 음식과 문화 교양 강좌에 대한 Z세대의 수업 만족도 및 수강한 교양 교과목의 타인 추천 의도 정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II.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Prior Studies and Hypothesis Setting

기존 교양과목의 수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수업의 질, 교수자의 역량, 학습 환경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고 학생들의 추천 의도는 만족도, 개인의 성향, 과목의 실용성 등의 요인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음식과 문화의 교양과목에 대한 Z세대의 수업에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The class satisfaction of liberal arts subjects related to food, culture and Gen-Z

박혜숙(2016)의 Z세대 소비 욕구와 특징을 분석한 연구와 김동심(2019) 외 2인의 Z세대 대학생은 직업 인식에서 성취, 경제적 보상, 안정을 중요시한다는 연구가 있었다[6, 7]. 한편, 송주완(2020)의 Z세대의 외식 소비성향은 경제적 가치, 감정과 도전 그리고 미디어 활용 특징이 있다는 연구와 손정희(2021) 외 2인의 Z세대의 SNS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8, 9]. 이선희(2023)는 Z세대의 여가생활이 여가 만족도에 영향력이 있음을 조사하였고 김예은 외 1인(2024)은 Z세대의 소비 특성이 공유 주의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며 경험 중심의 디지털 친화적 소비충임을 연구한 결과를 각각 소개하였다[10, 11]. 한편, 식생활 교양 교과목에 관한 연구로 임양순(2006)의 비전공 학생의 식생활 교양과목이 대학생의 식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12]가 있었다. 이후 박훈지 외 1인(2016)의 식생활 관련 교양 수업에서 교양 교육 서비스 품질 요인(지식, 흥미, 강사)이 교육 만족도에 정(+)의 상관관계임을 보인 연구와 정영혜(2024)는 식생활과 건강 교양 교과목이 수강 대학생의 식습관 자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13, 14]. 신입생들이 입학 후 첫 1학기 수강한 '음식과 문화'의 수업 만족도와 다른 교양 교과목 수강 후 2학기에 수강한 '음식과 문화' 수업의 수업 만족도는 다를 것이다. 1학기 수강 경험을 통해 2학기 수업 만족도 조사에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응답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1학기과 2학기 만족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 H1을 설정한다.

H1 : Z세대 학생들의 음식과 문화 교양 수업에서 1학기 과 2학기의 수업 만족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1: 학생 참여도는 2학기가 1학기보다 높을 것이다.

H1-2: 타인 추천 의도는 2학기가 1학기보다 높을 것이다.

2. The student engagement, class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to others

먼저, 학생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장완 외 1인(2016)의 학생 참여가 전공계열, 학년의 상호작용에 따라 차이를 보인 연구와 김희란 외 1인(2016)의 대학생 학생 참여 하위 변인이 성별, 계열별 특성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었다[15, 16]. 이어서 김현진 외 1인(2017)의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생 참여 척도를 타당화하는 연구와 이성하(2019)의 수업에 적용한 학생 참여 전략과 교육적 효과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17, 18]. 또한, 최보금 외 2인(2019)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비주류 학생의 학생 참여 능동 학습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김정섭(2022)의 학업 회복력과 학생 참여 사이에 유의한 상관임을 보인 연구가 있었다[19, 20]. 그리고 최근 강연임(2024)은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와 학습 효과를 규명한 연구가 있었다[21].

교양 교과목의 수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는 이은준(2017)의 교양 수업 만족도 4개 유형 제시 결과와 이정오(2022)의 교수-학습구성 요인(취업 목표, 취업 준비, 교수 학습, 수업과제)과 수업 만족도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 결과 소개가 각각 있었다[22, 23]. 또한, 이종연(2024)은 교양 수업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가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소개하였다[24]. 한편, 유두련(2011)의 대학생 외식 소비자의 지각된 타인 추천 의도 영향력은 재구매 의도가 타인 추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문소윤(2011) 외 1인의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도출하고 유효성은 타인 추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25, 26]. 이어서, 김승용 외 1인(2012)의 인지적 몰입의 수업 만족도는 추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강혜정(2014)의 푸드 스타일링(Food styling) 속성 요인이 타인 추천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각각 있었다[27, 28]. 강경구(2016)의 조리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교육환경 만족도가 타인 추천 의도에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와 박준환 외 1인(2019)의 교양 수업의 교수-학습 구성 요인이 타인 추천 의도에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29, 30]. 또한, 나윤호 외 1인(2021)의 태권도 전공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활동 내용, 인과 관계 요인이 수업의 타인 추천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와 배기원 외 1인(2024)의 브랜드 이미지가 타인 추천 의도에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 그리고 성상훈(2024)의 시청 만족도와 타인 추천 간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결과가 있었다[31, 32, 3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 H2, H3을 설정한다.

H2 : Z세대 학생들의 음식과 문화 수업에서 학생 참여 요인과 수업 만족도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H3 : Z세대 학생들의 음식과 문화 수업 만족도가 타인 추천 의도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III. Research Method

1. The target of research

본 연구 대상은 K 광역시 소재 C대학 음식과 문화 교양 수업의 2024년 1학기 수업과 2024년 2학기 수업이 동일 교재, 동일 교수가 수업을 운영한 결과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2024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음식과 문화 과목을 수강한 총 172명의 학생(1학기 87명, 2학기 85명)이다. 수강생의 소속 학과는 생명환경화공, 기계, 전기, 사회복지, 미래 자동차, 자동화시스템으로 분포되어 있다. 172명 중 161명(1학기 80명, 2학기 81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rvey targets (N=161)

Characteristics		2024 yr	
		1 st Semester	2 nd Semester
		Freq.(%)	Freq.(%)
Gender	male	65(81.3)	64(79.0)
	female	15(18.7)	17(21.0)
Age	less than 28	79(98.8)	78(96.3)
	over than 28	1(1.2)	3(3.7)
Department	Life Env. Eng.	19(23.8)	20(24.7)
	Mechanical Eng.	10(12.5)	9(11.1)
	Electrical Eng.	12(15.0)	10(12.3)
	Social Welfare	18(22.5)	19(23.5)
	Future Auto.	10(12.5)	11(13.6)
Respon. rate	Automation Sys.	11(13.7)	12(14.8)
	Survey Respon.	80(92.0)	81(95.3)
	Total Enrolled St.	87	85
Total		80(100)	81(100)

2. Research methods and problems

2.1 The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표집은 비확률 표집으로 설문지는 자기 평가 기입법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본 교과목 수업 시간에 설문 목적, 설문 작성 방법, 성적과 무관함 등을 충분히 설명 후 배포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4년 1학기 자료의 수집 조사 기간은 2024년 6월 3일(월)부터 6월 10일(월)까지 전체 87명 중 85부(98.0%)를 수거하였다.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 5개를 제외한 80부(92.0%)를 조사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024년 2학기 자료 수집도 11월 11일(월)부터

11월 18일(월)까지 전체 85명 중 83부(97.6%)를 수거하였으나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 2개를 제외한 응답지 81부(95.3%)를 조사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총 161명의 설문 응답 자료는 SPSS Ver. 23.0을 이용 크롬바흐 알파(Cronbach's α) 신뢰도 계수 산출과 t-검증(t-test),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2.2 The research model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음식과 문화 교양 교과목을 수강한 Z세대들의 수업 만족도와 타인 추천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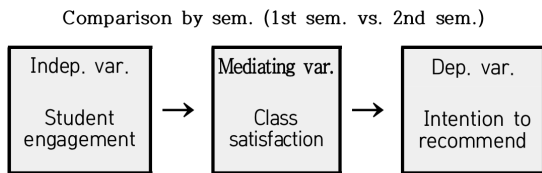


Fig. 1. The Research Model

2.3 The research problem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기별 차이를 비교하며, 학생 참여도가 수업 만족도, 수업 만족도가 추천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설 1(H1): Z세대 학생들의 1학기과 2학기의 음식과 문화 교양 수업에서 수업 만족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1: 학생 참여도는 2학기가 1학기보다 높을 것이다. H1-2: 타인 추천 의도는 2학기가 1학기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H2): Z세대 학생들의 음식과 문화 수업에서 학생 참여 요인과 수업 만족도 간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3(H3): Z세대 학생들의 음식과 문화 수업에서 수업 만족도는 타인에게 추천 의도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3. The research tool

연구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육학 전공 교수 2명으로부터 설문지 예비 검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신뢰도는 크롬바흐 알파를 통해 검증하였다. ($\alpha > 0.7$) 설문지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선택 또는 단답형(4문항)과 5점 리커트 척도(Five point Likert scale)로 구성된 학생 참여도(6문항), 수업 만족도(6문항), 타인 추천 의도(6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구성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Table 2. The organize of the questionnaire

Sortation	Components indicator	N. of questions
Classification statistics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rvey targets (4)	4
Student engagement	behavioral engagement (2) emotional engagement (2) cognitive engagement (2)	6
Class satisfaction	expected (2) confirmation (2) satisfaction (2)	6
Intention to recommend	attitude (2) subjective norms (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	6
Total number of questions		22

3.1 The student engagement

학생 참여 측정 도구는 카우(Kahu)[34]의 학생 참여 이론을 이용하였다. 측정 문항은 먼저 수업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출석, 조별 활동 및 과제 제출) 여부와 행동적 참여(Q.1~Q.2), 학습 과정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반응(흥미, 만족감)에 관한 정서적 참여(Q.3~Q.4),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학습 수행 관여 정도(발표, 토론 참여)를 알아보는 인지적 참여(Q.5~Q.6)로 재구성하였다. 조사된 자료 분석은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Table 3. The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tudent engagement (N=161)

Question	Factor loading		Cronbach's α	
	1 st Sem.	2 nd Sem.	1 st Sem.	2 nd Sem.
Question 1	.627	.766	.705	.751
Question 2	.714	.782		
Question 3	.793	.807	.816	.867
Question 4	.801	.894		
Question 5	.915	.903	.824	.845
Question 6	.902	.917		
Eigenvalue	1.36	1.55		
Variance %	78.15	70.24		
Cumulative %	78.15	70.24		
Kaiser-Meyer-Olkin p=.000		1 st Semester .816	2 nd Semester .82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χ^2) p=.000		1 st Semester 3074.348	2 nd Semester 4027.627	

표 3을 살펴보면 1학기과 2학기 모두 요인 적재량이 0.6 이상이므로 요인 적합성을 보인다. 누적 분산의 1학기 설명력은 78%이고 2학기 설명력은 70% 이상을 보인다. 데이터 샘플 적합성 평가지표인 1학기 KMO=.816이고 2학기 KMO=.825, $p < .001$ 이므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구형성 검정치도 요인 분석에 p-value가 0.05 미만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학기 신뢰도 범위는 .705~.824이고 2학기 신뢰도 범위는 .751~.867이므로 설문 항목들이 같은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

3.2 The class satisfaction

아놀 바타세르지(Anol Bhattacharjee)[35]에 의해서 개발된 수업에 대한 기대와 실제 수업 경험 간의 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수업 만족도 측정용 도구로 기대 확인 이론(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ECT)을 이용하였다. 문항은 학생이 수업 전에 가지는 기대(Q.1~Q.2), 실제 수업 경험 기대 충족 확인(Q.3~Q.4), 기대와 실제 경험의 일치 여부에 따른 만족(Q.5~Q.6)으로 재구성하였다[36]. 자료 분석은 요인 분석과 신뢰도(Reliability analysis) 분석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Table 4. The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class satisfaction (N=161)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Cronbach's α	
	1 st Sem.	2 nd Sem.	1 st Sem..	2 nd Sem.
Question 1	.798	.814	.746	.815
Question 2	.775	.782		
Question 3	.895	.907	.781	.729
Question 4	.901	.896		
Question 5	.895	.903	.827	.864
Question 6	.906	.917		
Eigenvalue	2.46	3.01		
Variance %	71.25	82.64		
Cumulative %	71.25	82.64		
Kaiser-Meyer-Olkin p=.000	1 st Semester		2 nd Semester	
	.862		.89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χ ²) p=.000	1 st Semester		2 nd Semester	
	4704.138		5092.467	

표 4를 살펴보면 비교 대상 1~2학기 모두 요인 적재량이 0.7 이상으로 요인 적합성을 보이고 두 학기 모두 단일 요인으로 누적 분산이 모두 70% 이상으로 문항의 타당성이 설명되고 데이터 샘플 충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1학기 와 2학기 KMO=.862, KMO=.897이고 p<.001이므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구형성 검정치도(Bartlett's Test of Sphericity)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신뢰도 범위는 .746~.827이고 2학기 신뢰도 범위는 .729~.864이다.

3.3 The intention to recommend

타인 추천 의도에 관한 측정 도구는 아이섹 아젠(Icek Ajzen)[37]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 따라 측정 항목을 설계하였다. 수업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조사하는 태도(Q.1~Q.2), 수업의 가

치를 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지에 관한 주관적 규범(Q.3~Q.4), 타인에게 수업을 추천하는데 느끼는 통제감과 유익성 인식에 관한 지각된 행동 통제(Q.5~Q.6)로 재구성 하였다. 조사된 자료 분석은 요인 분석과 크롬 바흐 알파 신뢰도로 분석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Table 5. The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intention to recommend (N=161)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Cronbach's α	
	1 st Sem.	2 nd Sem.	1 st Sem.	2 nd Sem.
Question 1	.761	.816	.852	.881
Question 2	.829	.843		
Question 3	.747	.793	.715	.732
Question 4	.815	.832		
Question 5	.726	.731	.816	.854
Question 6	.769	.794		
Eigenvalue	4.91	3.52		
Variance %	72.46	75.11		
Cumulative %	72.46	75.11		
Kaiser-Meyer-Olkin= p=.000	1 st Semester		2 nd Semester	
	.857		.82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χ ²) p=.000	1 st Semester		2 nd Semester	
	3501.452		3001.837	

표 5를 살펴보면 1학기 와 2학기 모두 요인 적재량이 .726 ~.843이므로 요인 적합성을 보이고 두 학기 모두 단일 요인으로 누적 분산이 모두 70% 이상으로 문항의 타당성이 설명되고 데이터 샘플 충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1학기 와 2학기 KMO는 KMO=.857, KMO=.829, p<.001이므로 우수하게 나타내고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구형성 검정치도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신뢰도 범위는 .715~.852이고 2학기 신뢰도 범위는 .732~.881이므로 설문 항목들이 같은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

IV. The contents of study

1. The descriptiv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1.1 The t-test results of student engagement

2024년 1학기 와 2학기 음식과 문화 교양 수업에서 조사 대상 학생 참여를 조사하였다. 조작적 정의에 따른 하위요인 행동적 참여(Q1-Q2), 정서적 참여(Q3-Q4), 인지적 참여(Q5-Q6)에 대한 하위요인별 독립표본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Table 6. The independent samples t-test results for student engagement by subscale (N=161)

sub-scale	Reli. α	1 st seme. M \pm SD	2 st seme. M \pm SD	t(df)	Cohen's d	p-val.
Behavioral (Q1-Q2)	.728	4.02 \pm .51	4.18 \pm .42	3.21 (159)	0.32	.002 **
Emotional (Q3-Q4)	.845	4.25 \pm .48	4.45 \pm .39	2.98 (159)	0.41	0.03 **
Cognitive (Q5-Q6)	.874	3.98 \pm .56	4.22 \pm .50	3.75 (159)	0.38	<0.00 ***

*p<.05, **p<.01, ***p<.001

표 6의 t-검정 결과, 2학기 인지적 참여(발표, 토론)가 1학기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N=161). 모든 하위 요인에서 $\alpha > .70$ 으로 측정 타당성이 확보되었다(표 3 참조). 행동적 참여(Q1-Q2; $\alpha = .728$)에서 2학기(M=4.18, SD=0.42)와 1학기(M=4.02, SD=0.51) 평균 차이가 있었고 t(159)=3.21, p=.002, d=0.32로 나타났다. 정서적 참여(Q3-Q4; $\alpha = .845$)에서도 2학기 평균(M=4.45, SD=0.39)이 1학기(M=4.25, SD=0.48) 대비 더 높았고 t(159)=2.98, p=.003, d=0.41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참여(Q5-Q6; $\alpha = .874$) 2학기 평균(M=4.22, SD=0.50)이 1학기(M=3.98, SD=0.56)보다 높게 나타났다.

1.2 The t-test results of class satisfaction

2024년 1학기과 2학기 음식과 문화 교양 수업에서 조사 대상 Z세대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작적 정의에 따른 하위 요인 기대(Q1-Q2), 확인(Q3-Q4), 만족(Q5-Q6)에 대한 하위 요인별 독립표본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Table 7. The Independent samples t-test results for class satisfaction by subscale (N=161)

sub-scale	Reli. α	1 st seme. M \pm SD	2 st seme. M \pm SD	t(df)	Cohen's d	p-val.
Expect. (Q1-Q2)	.815	3.92 \pm .55	4.15 \pm .47	2.87 (159)	0.35	.005 **
Confirm. (Q3-Q4)	.729	4.01 \pm .52	4.29 \pm .38	3.42 (159)	0.52	.001 ***
Satis. (Q5-Q6)	.864	4.09 \pm .57	4.36 \pm .41	3.18 (159)	0.47	.002 **

*p<.05, **p<.01, ***p<.001

표 7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2학기 수업 만족도가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N=161). 특히, 2학기 '확인' 요인(기대-경험 일치도)이 1학기 대비 가장 크게 향상되었으며(p<.001, d=0.52), 모든 하위 요인에서 $\alpha > .70$ 으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표4 참조). 기대 하위 요인(Q1-Q2; $\alpha = .815$)의 1학기(M=3.92, SD=0.55) 대비 2학

기 평균(M=4.15, SD=0.47)이 더 높았고 t(159)=2.87, p=.005, d=0.35로 나타났다. 확인 하위 요인(Q3-Q4; $\alpha = .729$)에서는 1학기(M=4.01, SD=0.52) 대비 2학기(M=4.29, SD=0.38) 평균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고 t(159)=3.42, p<.001, d=0.52로 나타났다. 만족 하위 요인(Q5-Q6; $\alpha = .864$)에서 1학기(M=4.09, SD=0.57)보다 2학기 평균(M=4.36, SD=0.41)이 더 높았고 t(159)=3.18, p=.002, d=0.47로 나타났다.

1.3 The t-test results of intention to recommend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에 따른 하위 요인 태도(Q1-Q2), 주관적 규범(Q3-Q4), 지각된 통제(Q5-Q6)에 대한 하위 요인별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8과 같다.

Table 8. The independent samples t-test results for intention to recommend by subscale (N=161)

sub-scale	Reli. α	1 st seme. M \pm SD	2 st seme. M \pm SD	t(df)	Cohen's d	p-val.
Attitude (Q1-Q2)	.881	3.89 \pm .62	4.13 \pm .49	2.94 (159)	0.39	.001 ***
Subjec. norm (Q3-Q4)	.732	3.93 \pm .58	4.24 \pm .52	3.57 (159)	0.48	.001 ***
Perceiv. control (Q5-Q6)	.854	4.00 \pm .52	4.28 \pm .45	3.82 (159)	0.51	.001 ***

*p<.05, **p<.01, ***p<.001

표 8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2학기 추천 의도가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N=161). 먼저 태도(Q1-Q2; $\alpha = .881$) 요인에서 1학기(M=3.89, SD=.62)보다 2학기 평균(M=4.13, SD=.49)이 더 높았고 t(159)=2.94, p=.001, d=0.39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규범(Q3-Q4; $\alpha = .732$) 요인도 2학기 평균(M=4.24, SD=.52)이 1학기 평균(M=3.93, SD=.58)보다 더 높았고 t=3.57, p<.001, d=0.48)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각된 통제(Q5-Q6; $\alpha = .854$) 요인이 가장 큰 향상이 있었다. 2학기 평균(M=4.28, SD=.45)이 1학기(M=4.00, SD=.52)보다 더 높았고 t(159) =3.82, p<.001, d=0.51로 나타났다. 지각된 통제의 효과 크기(d>0.5)는 2학기 교육과정 개선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 추천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easured variables

2.1 relation between student engagement and class satisfaction

학생 참여도와 수업 만족도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별 문항이 아닌 하위 요인별 합산 점수(문항 평균값)를 사용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하였다. 먼저 표3-표5에서 검증된 조작적 정의와 일치시켜 독립변수(학생 참여도) 하위 요인에서 행동적 참여(정기적 출석 및 조별 활동 참여, $\alpha=.728$), 정서적 참여(수업 흥미도 및 만족감, $\alpha=.845$), 인지적 참여(발표 토론 참여 및 심층 학습 노력, $\alpha=.874$)와 종속변수인 수업 만족도(기대, 확인, 만족의 모든 만족도 문항의 합산 점수 $\alpha=.864$)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 참여도(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참여)와 수업 만족도(기대, 확인, 만족)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 인지적 참여와 확인 요인 간 가장 강한 정(+)적 상관관계($r=.827, p<.001$)로 나타났고 정서적 참여와 확인 간 정(+)적 상관관계($r=.734, p<.01$)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참여와 만족 간 상관관계($r=.689, p<.001$)로 나타났고 정서적 참여와 만족 요인 간 상관관계는 $r=.658 (p<.001)$ 로 나타났다. 행동적 참여와 기대 요인 간 상관관계는 $r=.527 (p<.01)$ 로 수업 출석 및 조별 활동 참여가 수업 전 기대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로 가장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확인과 만족 간 상관관계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r=.805, p<.001$)로 나타났다.

행동적 참여(출석·과제)는 기대와 확인에만 중간 영향력을 보여 피상적 참여의 한계를 시사하였다. 결국, H2의 학생 참여도와 수업 만족도 간 정(+)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2.2 relation between class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commend

수업 만족도 하위 요인과 추천 의도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성 검증된 하위 요인 평균값을 사용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수업 만족도) 요인에서 기대(수업 전 기대 수준, $\alpha=.815$), 확인(기대 경험 일치도, $\alpha=.729$), 만족(최종수업 만족도, $\alpha=.864$)과 종속변수(추천 의도)의 하위 요인 태도(수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 $\alpha=.881$), 주관적 규범(타인의 기대 인식, $\alpha=.732$), 지각된 통제(추천 용이성 인식, $\alpha=.854$), 요인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작적 정의에 따른 측정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을 살펴보면 수업 만족도(기대, 확인, 만족)와 추천 의도(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모든 상관계수는 정(+)적이며, $p<.001$ 또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확인 요인과 주관적 규범 요인 간 상관관계수($r=.836, p<.001$)와 확인과 만족 요인 간 상관관계수($r=.817, p<.001$)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지각된 통제와 확인 요인 간 상관관계수($r=.738, p<.001$)와 태도와 확인 요인 간 상관관계수($r=.734, p<.00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만족과 태도 요인 간 상관관계수($r=.689, p<.001$)와 기대와 지

Table 9.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tudent engagement and class satisfaction (n=161)

Variable	Behavioral engagement	Emotional engagement	Cognitive engagement	Expectation	Confirmation	Satisfaction
Behavioral engagement	1.000					
Emotional engagement	.682***	1.000				
Cognitive engagement	.603***	.734***	1.000			
Expectation	.527**	.618***	.712***	1.000		
Confirmation	.603***	.734**	.827***	.712**	1.000	
Satisfaction	.491**	.658***	.689***	.715**	.805***	1.000

*p<.05 **p<.01, ***p<.001

Table 10.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lass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commend (n=161)

Variable	Expectation	Confirmation	Satisfac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control
Expectation	1.000					
Confirmation	.712***	1.000				
Satisfaction	.715**	.817***	1.000			
Attitude	.618***	.734***	.689***	1.000		
Subjective norm	.603***	.836***	.712***	.682***	1.000	
Perceived control	.527**	.738***	.658***	.603***	.724***	1.000

*p<.05 **p<.01, ***p<.001

각된 통제 요인 간 상관계수($r=.527, p<.01$)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모든 하위 요인의 Cronbach's $\alpha >.70$ (표3-5 참조). 결국 확인과 주관적 규범 요인 간의 강한 상관 정(+)적 상관관계의 함의는 Z세대 학생들의 음식과 문화 수업에서 기대 경험이 충족될수록 학생들은 타인에게 수업을 추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더 강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과 태도 요인 간 상관관계의 함의는 Z세대 학생들의 음식과 문화 수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 추천하려는 태도가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대와 지각된 통제 요인 간 상관관계의 함의는 수업 전 기대가 클수록 추천 행위에 대한 자신감(용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결국, H3의 수업 만족도와 타인 추천 의도 간의 정(+)적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 Analysis of factor Influence via multiple regression

3.1 The Impact of student engagement on class satisfaction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학생 수업 참여 하위 요인의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도를 3개 하위 변인 즉, 행동적 참여(출석, 과제), 정서적 참여(흥미, 만족감), 인지적 참여(발표, 토론)로 구분하고, 이들 변인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검증을 위한 계층적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선택 방법으로 단계적 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적용하여 유의미한 예측 변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학생 참여도 하위 변인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표 11에서 학기별 회귀계수 비교를 살펴보면 행동적 참여(출석/과제)는 1학기 $\beta=.658^{***}$ ($B=.714, p<0.001$)에서 2학기 $\beta=.679^{***}$ ($B=.742, p<0.001$)로 2학기에 약간 증가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서적 참여(흥미/만족감)는 1학기 $\beta=.787^{**}$ ($B=.691, p<0.01$)에서 2학기 $\beta=.862^{**}$ ($B=.568, p<0.01$)로 가장 큰 영향력 증가($\Delta\beta =+.075$)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지적 참여(발표/토론)는 1학기 $\beta=.715^{***}$ ($B=.723, p<0.001$)에서 2학기 $\beta=.745^{***}$ ($B=.749, p<0.001$)로 지속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독립변수(학생 참여;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와 종속변수(수업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1학기에 0.826이고 2학기에 0.851로 나타나고 표준회귀선의 적합도인 결정계수 검증 결과 학생 참여도 변인들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1학기에 72.5%, 2학기에 79.3%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F-통계량은 두 학기 모두 $p<.001$ 로 모형 유의성을 확보하였고 다중공선성(VIF)은 모든 값이 3보다 작아(1.75~2.15) 독립변수 간 상관성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잔차의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더빈-왓슨 검증(Durbin-Watson Test) 결과는 2.014(1학기), 2.038(2학기)로 1, 2학기 모두 2에 근접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은 없게 나타났다. 결국 표 11의 함의 중 정서적 참여의 중요성으로 2학기에 β 값(.862)이 가장 높았다. 이 의미는 흥미와 만족감이 수업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2학기 β 값의 증가는 교수법 개선(SNS 활용, 실습강화) 효과의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Table 11.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tudent engagement components on course satisfaction (N=161)

Predictors	1 st semester				2 nd semester			
	B(SE)	β	t(p)	VIF	B(SE)	β	t(p)	VIF
Behavioral engagement (attendance, assignments)	.714(0.081)	.658	11.673 (0.000***)	1.824	.742(0.073)	.679	8.512 (0.000***)	1.754
Emotional engagement (interest, satisfaction)	.691(0.063)	.787	9.214 (0.004**)	2.157	.568(0.058)	.862	12.626 (0.009**)	2.036
Cognitive engagement (presentations, discussions)	.723(0.078)	.715	10.586 (0.002**)	1.973	.749(0.064)	.745	11.038 (0.007**)	1.895
Model fit statistics	1 st semester				2 nd semester			
R	.826				.851			
R ²	.725				.793			
adj.R ²	.713				.765			
F-statistic (p-value) F(3,157)=	26.963***				29.428***			
Durbin-Waston's	2.014				2.038			

p<.01, *p<.001

3.2 The impact of class satisfaction on recommendation intentions

타인 추천 의도에 미치는 수업 만족도 하위 요인의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아놀 바타허지[35]의 기대-확인 이론(ECT)에 근거하여 수업 만족도를 3가지 하위 요인(기대 충족, 확인, 만족)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대 충족(강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 확인(기대, 경험 일치도), 만족(지식, 경험 획득)을 독립변인으로, 타인 추천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기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동시 투입(Enter method)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이는 선행연구[35]의 이론적 틀과 일치하며, 다중공선성 검증(VIF<3)을 통해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수업 만족도 하위 변인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12를 살펴보면 수업 만족도 하위 요인과 타인 추천 의도 상관관계는 1학기 .816이고 2학기 .846으로 나타났다. 표준회귀선의 적합도인 결정계수 검증 결과 수업 만족도 변인이 타인 추천 의도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1학기 69.7%, 2학기 71.5%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자기상관(Auto correlation)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더빈-왓슨 검증(D-W Test) 결과는 1~2학기(1.953~1.978) 모두 2에 근사하여 자기 상관성이 없이 회귀 가정 충족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통계량으로 두 학기 모두 p<.001 수준에서 모형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학기별 회귀계수 비교를 통해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대 충족(강의 질)에서 1학기 $\beta=.691^{**}$ (B=.574, p<.01)에서 2학기 $\beta=.718^{**}$ (B=.625, p<.01)로 2학기에 소폭 증가하며 지속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확인(기대-경험 일치)에서는 1학기 $\beta=.687^{**}$

(B=.362, p<.01)에서 2학기 $\beta=.692^{***}$ (B=.467, p<.001)로 유의수준 향상(p<.001) 및 효과 크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족(지식/경험)에서는 1학기 $\beta=.729^{***}$ (B=.735, p<.001)에서 2학기 $\beta=.786^{***}$ (B=.449, p<.001)로 가장 큰 영향력이 증가($\Delta\beta=+.057$)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VIF)은 모든 값 <2.3(1.78~2.22)이므로 독립변수 간 상관성 문제가 없게 나타났다. 특히, 만족(지식/경험)의 핵심 역할로 2학기 β 값(.786)이 가장 높았고 따라서 실질적 학습 성과가 추천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β 값의 증가는 체험 활동 강화(요리 실습) 효과로 해석되어 진다.

V. Results and Suggestions

본 연구에서는 C 대학의 음식과 문화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는 Z세대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타인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2024년 1학기과 2학기 수업을 비교 조사였다.

1. Main research results

먼저, 표6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학기 학생 참여도는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1학기보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학기 피드백을 반영한 2학기 수업 설계(협동 학습 강화)의 효과로 해석된다. 1학기보다 2학기에 조별 활동 참여, 발표와 토론 참여, 만족도 높은 과제 제출 순으로 학생 참여 평균이 높게 증가했음을 보인다. 특히, 2학기 학생 참여도 하위 요인의 인지적 참여(발표, 토론)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t=3.75, p<.001, d=0.38), 이어 정서적 참여(흥미, 만족감;

Table 12.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lass satisfaction components on recommendation intentions (N=161)

Predictors	1 st semester				2 nd semester			
	B(SE)	β	t(p)	VIF	B(SE)	β	t(p)	VIF
Expectation confirmation (course quality)	.574(0.083)	.691	10.725 (0.002**)	1.918	.638(0.061)	.718	9.325 (0.007**)	1.853
Confirmation (expectation-experience match)	.362(0.064)	.687	14.837 (0.004**)	2.576	.472(0.085)	.692	7.286 (0.000***)	2.106
Satisfaction (knowledge, experience gain)	.735(0.037)	.729	6.271 (0.001**)	1.783	.453(0.041)	.783	5.476 (0.000***)	1.825
Model fit statistics	1 st semester				2 nd semester			
R	.816				.846			
R ²	.697				.715			
adj.R ²	.684				.693			
F-statistic(p-value) F(3,157)=	25.843 (p<.001)				28.174 (p<.001)			
Durbin-Waston's	1.953				1.978			

p<.01, *p<.001

$t=2.98, p=.003, d=0.41$), 행동적 참여(출석, 과제; $t=3.21, p=.002, d=0.32$) 순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1학기 피드백을 바탕으로 2학기에 협동 학습 활동을 강화한 점과 연관될 수 있다. 특히 인지적 참여의 효과 크기($d=0.38$)가 가장 컸던 점을 고려할 때, 교수자의 다음 수업 학습 전략이 고려된다. 우선, 토론 기반 수업 설계로 발표 시간 확대 및 소그룹 토론 비중 증가와 AI 학습 도구로 ChatGPT 활용 그리고 과제 디자인 개선으로 실생활 연계 프로젝트 과제 부여가 중요한 요소로 해석된다. 결국, Z세대 맞춤형 교수법으로 교수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교수법 및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수업 설계 개선을 통한 수업 만족도 향상을 기할 수 있어 보인다.

수업 만족도 관련 표 7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보면 음식과 문화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Z세대 학생들의 2학기 수업 만족도는 1학기 대비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특히, 확인(기대, 경험 일치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t=3.42, p<.001, \text{Cohen's } d=0.52$), 만족(지식, 경험; $t=3.18, p=.002, d=0.47$), 기대 충족(강의 질; $t=2.87, p=.005, d=0.35$) 순으로 효과 크기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기대 경험 일치도(확인)가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강의 질에 대한 기대(기대 충족)는 상대적으로 적게 변화했다. 다시 말해, 2학기 개선 효과는 확인, 만족, 기대 충족 순으로 점차 작아졌지만 2학기 교육과정에서 다음 요소들 기여로 해석된다. 첫째, 강의 자료 개선으로 1학기 피드백을 반영한 실생활 연계 예시 추가는 기대 충족을 높였다. 둘째, 학습 경험 설계에서 Z세대 선호 방식인 실습 체험 활동, SNS 활용 강화 등은 만족도를 높였다. 셋째, 명확한 목표 설정에서 강의 초반 학습 성과 기대치 조정 등으로 확인 요인을 더 잘 충족시켰다.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타인에게 수업 추천 의도 관련 표 8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2학기 타인 추천 의도는 1학기 대비 모든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p<.05$). 특히, 하위 요인별 효과 크기(Cohen's d)를 비교한 결과, 지각된 통제(추천 행위에 대한 용이성 인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t=3.82, p<.001, d=0.51$), 이어 주관적 규범(타인의 기대에 대한 인식, $t=3.57, p<.001, d=0.48$)과 태도(추천 의향, $t=2.94, p=.001, d=0.39$) 순으로 효과 크기가 감소하였다. 이는 2학기 교육과정 개선이 학생들의 추천 의도 하위 요인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표 9의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학생 참여의 세 가지 하위 요인(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참여)과 수업 만족도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

다($p<.01$).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지적 참여(발표 및 토론 참여 정도)가 수업 만족도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827, p<.001$) 이어 정서적 참여(수업에 대한 흥미 및 만족감, $r=.734, p<.01$), 행동적 참여(출석 및 과제 제출, $r=.603, p<.01$) 순으로 상관계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카우(Kahu)의 학생 참여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Z세대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9의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학생 참여 하위 요인(행동적, 정서적, 인지적)과 수업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p<.01$). 특히, 인지적 참여(발표 및 토론 참여)가 수업 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성을 보였고($r=.827, p<.001$), 정서적 참여(흥미 및 만족감, $r=.734, p<.01$), 행동적 참여(출석 과제, $r=.603, p<.01$) 순으로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카우(Kahu)[34]의 학생 참여 이론에서 제시한 인지적 참여의 중요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Z세대의 학습 성향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참여 증진으로 토론 시간 확대 및 발표 평가 비중 상향 조정을 통해 심층적 학습 참여 유도. 둘째, 정서적 참여 강화 방안으로 증강현실(AR) 기반 식문화 체험 활동 도입으로 학습 동기 및 흥미 유발. 셋째, 행동적 참여 촉진 방법으로 AI 학습 시스템과 자동화 과제 피드백 도구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 참여 유도 등이다.

표 10의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수업 만족도의 하위 요인 기대(Expectation), 확인(Confirmation), 만족(Satisfaction)과 타인 추천 의도의 하위 요인인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통제(Perceived Control)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함의는 확인과 주관적 규범($r=.836, p<.001$) 사이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이 수업이 기대에 부합한다고 느낄수록 타인에게 추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더 강하게 인식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만족 요인 역시 모든 추천 의도 하위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분석(표 12)에서 $\beta=.735 (p<.001)$ 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것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기대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태도와의 관계($r=.61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국, 이 분석은 수업 만족도, 특히 확인과 만족이 타인 추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표 11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참여 요인들이 수업 만족도 변동의 72.5~79.3%를 설명하고 두 학기 모두 정서적 참여($\beta=.787\sim.862$)가 수업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2학기 β 값 9.5% 증가는 교수법 개선(실습, SNS 활용)이 흥미 유발에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인지적 참여의 지속적 효과 정도를 함의하는 발표·토론 참여도(인지적 참여, $\beta=.715\sim.745$)는 높은 영향력을 보여 협동 학습 강화가 심층 참여 촉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동적 참여의 한계로 출석·과제 제출(행동적 참여, $\beta=.658\sim.679$)은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피상적 참여만으로는 만족도 향상에 한계성을 보였다. 학기별 차이 시사점은 1학기 피드백을 반영한 수업 설계(실습 증대, 토론 시간 확장)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학생 참여 유형별 영향력 차이와 학기별 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며, 특히 정서적·인지적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업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만족' 요인($\beta=.729\sim.783$)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특히 2학기에는 효과 크기(Cohen's d)가 0.51에 달해 실제 학습 성과(지식 습득 및 경험)가 타인 추천 의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확인' 요인은 $\beta=.687\sim.692$ 의 안정적인 영향력을 보였고, 상관분석에서 '주관적 규범'과 $r=.836(p<.001)$ 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기대와 경험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타인으로부터의 추천 압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대 충족' 요인의 영향력($\beta=.691\sim.718$)은 상대적으로 낮아, 강의 질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학습 성과와 체험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국, '만족' 요인의 절대적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는 체험 중심의 교수법이 Z세대 교육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 강화와 학습자의 실제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 Hypothesis testing

연구의 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다. 먼저, H1 검증 결과 독립표본 t-검정(표7) 분석 결과, 2024년 2학기 수업 만족도($M=4.28$, $SD=0.41$)가 1학기($M=4.01$, $SD=0.5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t(159)=3.42$, $p<.001$). 효과 크기(Cohen's $d=0.52$)는 중간에서 큰 효과 범주에 속하며, 특히 '확인' 요인($d=0.52$)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다중회귀분석(표12)에서도 2학기 수업 만족도의 영향력($\beta=.735$, $p<.001$)이 1학기($\beta=.583$)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 박훈지 외 1인[13]과 정혜영[14]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H1-1 검증 결과로는 학생 참여도는 2학기($M=4.30$, $SD=0.41$)가 1학기($M=4.12$, $SD=0.5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159)=3.21$, $p=.002$).

효과 크기($d=0.35$)는 중간 수준이며, 인지적 참여(발표 및 토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H1-2 검증 결과는 타인 추천 의도는 2학기($M=4.25$, $SD=0.48$)가 1학기($M=3.94$, $SD=0.57$)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t(159)=3.82$, $p<.001$), 이는 수업 만족도 향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r=.712$, $p<.001$). 둘째, H2 검증 결과로 학생 참여도와 수업 만족도 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정서적 참여-확인 요인($r=.734$, $p<.001$), 인지적 참여-만족 요인($r=.827$, $p<.001$) 그리고 다중회귀분석(표11)에서 정서적 참여($\beta=.658$, $p<.001$)와 인지적 참여($\beta=.697$, $p<.001$)가 수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카우[34]의 선행연구 학생 참여 이론과 이성하[18] 그리고 강연임[21]의 결과와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H3 검증 결과로 수업 만족도와 추천 의도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만족-태도($r=.827$, $p<.001$), 확인-주관적 규범($r=.836$, $p<.001$), 그리고 다중회귀분석(표12)에서 만족 요인($\beta=.735$, $p<.001$)이 추천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놀 바타세르지(2001) 기대-확인 이론[35]과 박준환 외 1인 그리고 배기원 외 1인의 결과[30, 32]와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

1.2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연구 결과는 Z세대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학습 환경을 선호하며, 이러한 환경이 수업 만족도와 타인 추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적극적인 수업 참여 유도로 조별 활동, 발표, 토론과 같은 참여형 학습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수업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하고 유용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법 도입을 위해 능동적인 실습과 동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한 교수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지식과 경험 만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넷째, 지속적인 피드백과 상호 소통 방법의 개선책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학기 간 비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교수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 Limitation

본 연구는 C 대학에서 2024년 1학과 2학기에 단 학기 교과목으로 운영된 음식과 문화 교양 수업을 대상으로

수강생이 대부분 Z세대 161명 학생으로 구성된 수업이었다. 이 수업에서 학생 참여와 수업 만족도 그리고 수업 만족도와 타인 추천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표본의 제한성과 일반화 가능성 부족으로 특정 대학과 특정 과목에 국한된 표본으로, 다른 대학이나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단면적 연구 설계의 한계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에 따른 변화나 인과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편향 가능성 설명으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한 편향이나 자기 과대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변수의 제한성과 잠재적 외생 변수 미고려로 인해 본 연구는 학생 참여, 수업 만족도, 타인 추천 의도의 하위 변인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 교수자의 역량, 교육환경 등의 외생 변수가 통제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따르고 따라서 연구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3. Suggestions

연구 결과와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맞춤형 교수법 도입을 위하여, 교수자들은 AI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여 조별 활동, 발표, 토론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업에 도입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적인 교수 개발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대학 차원에서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수 역량 강화 워크숍과 세미나를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 전략과 최신 교육 트렌드인 에듀테크의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학생 참여도 증진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은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교재 개발, 협동 학습을 위한 조별 활동 공간 마련, 토론 및 발표를 지원하는 기술적 인프라 구축, 학생 의견을 반영한 수업 운영 방식 도입 등 물리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REFERENCES

- [1] <https://www.sisanews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
- [2] <https://www.20slab.org/Archives/37734>
- [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610>
- [4]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32>
- [5] <https://story.s-oil.com/2023/05/10/>
- [6] H. S. Park,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 Generation with Life Style Focus on Generation Z,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7, No. 6, pp. 753-767. Dec. 2016. DOI: 10.22143/HSS21.7.6.44
- [7] D. S. Kim, K. H. Ju and J. H. Kim, "A Comparative Study on Employment Environment and Occupational Perception Between Echo Generation and Z Generation as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5, pp. 725-740, Oct. 2019. DOI: 10.22143/HSS21.10.5.51
- [8] J. W. Song, "The Effects of the Food Service Consumption Propensity of Generation Z on Food Service Companies Selection Attribute and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Hotel & Resort, Vol. 19, No. 1, pp. 289-312, Feb. 2020. <https://kiss.kstudy.com/ExternalLink/Ar?key=3755752>
- [9] J. H. Shon, C. S. Kim and H. S. Lee, "A study on the response of each generation to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Focusing on Generation MZ, Generation X, and Baby Boomers,"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Vol. 77, pp. 202-215, Oct. 2021. DOI: 10.25111/jcd.2021.77.14
- [10] S. H. Lee, "A Comparative Study of Leisure Lifestyle and Leisure Satisfaction between Millennials(Generation M) and Generation Z," Journal of Tourism Enhancement, Vol. 11, No. 1, pp. 71-96, Feb. 2023. DOI : 10.35498/kotes.2023.11.1.71
- [11] Y. E. Kim and S. I. Kim, "The Impact of Generation Z's Consumer Characteristics on the E-commerce Industry," Industry Promotion Research, Vol. 9, No. 3, pp. 129-138, Jul. 2024. DOI: 10.21186/IPR.2024.9.3.129.
- [12] Y. S. Im, "Effects of Diet and Health Course on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Kangwon Area," Human Ecology Research, Vol. 44, No. 5, pp. 119-128, May. 2006.
- [13] H. J. Bak and H. S. Kim, "A Study of General Educational Quality Factors, Satisfaction, and Loyalty Focused on General Courses related to Dietary Life,"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l. 22, No. 3, pp. 155-165, Apr. 2016.
- [14] Y. H. Jeong, "Qualitative Study on Health Problems and Health Behavio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Students Registered in-Dietary Life and Health-Course for General Education,"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Vol. 35, No. 2, pp. 277-290, May. 2024. DOI: 10.7856/kjcls.2024.35.2.277.
- [15] J. W. Ko and S. M. Park,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engagement and perceived learning outcomes by academic disciplines and grade level,"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43, No. 1, pp. 209-230, Jan. 2016. DOI : 10.22804/jke.2016.43.1.008
- [16] H. R. Kim and H. S. Mo, "A Typology of Student Engagement

- and its Distribution based on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Vol. 34, No. 1, pp. 335-356, Apr. 2016.
- [17] H. J. Kim and S. A. Lee, "Validation of 4DS-Student Engagement Scale for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9, No. 4, pp. 627-655, Nov. 2017. DOI: 10.17927/tkjems.2017.29.4.627
- [18] S. H. Lee,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educational effects, learning-activity participation and evaluation strategy in student activities-centered classrooms at university,"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3, pp. 663-687, Feb. 2019. DOI: 10.22251/jlcci.2019.19.3.663
- [19] B. K. Choi, R. B. Shik and M. J. Park, "The Examination of Pers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ing Student Engagement of Minority Group Students in College,"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Vol. 32, No. 3, pp. 53-73, Mar. 2019. DOI: 10.35283/erft.2019.32.3.53
- [20] J. S. Kim,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Bouya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Time Perspectives and College Student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36, No. 2, pp. 109-127, Jun. 2022. DOI: 10.17286/KJEP.2022.36.2.01
- [21] Y. I. Gang, "Design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Student-Participatory Speaking Classes," *Knowledge & Liberal arts*, Vol. 16, pp. 275-302. Nov. 2024. DOI : 10.54698/kl.2024.16.275.
- [22] E. J. Lee, "Clustering the patterns of satisfaction to liberal arts courses among freshmen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1, No. 6, pp. 63-91, Dec. 2017.
- [23] J. O. Lee, "A Study on Satisfaction with Employment-related Liberal Arts Class Oper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3, No. 1, pp. 1937-1948. Dec. 2022. DOI: 10.22143/HSS21.13.1.137.
- [24] J. Y. Lee,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team achieve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project-based learning with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o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4, No. 6, pp. 475-495, Mar. 2024. DOI: 10.22251/jlcci.2024.24.6.475.
- [25] D. R. You, "Research Articles: Effect on Repurcha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to Others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in Foodservice Industry for University Students Consumer focused on Daegu, Gyeongbuk Provinc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Vol. 14, No. 3, pp. 113-135. Jun. 2011.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971434>
- [26] S. Y. Moon and J. L. Son. "The Effectiveness of Barista Educational Programs on Occupational Selec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Vol. 26, No. 2, pp. 181-203, Jun. 2011. <https://kiss-kstudy-com.libproxy.chosun.ac.kr/Detail/Ar?key=2943293>
- [27] S. Y. Kim and K. S. Le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of a Student Taking Cultural Physical Education Class, and Commitment to Exercise, Class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47, No. 1, pp. 45-56, DOI: 10.51979/KSSLS.2012.02.47.45.
- [28] H. J. K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ood Styling Factors on Customer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Focusing on Korean Fusion Cuisine,"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l. 20, No. 4, pp. 100-114, Aug. 2014.
- [29] K. K. Kang, "The Impact of Students' Educational Environmen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Focused on Students Major in Cooking and Baking,"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2(8), 157-171. Dec. 2016. DOI: 10.20878/cshr.2016.22.8.014
- [30] J. W. Park and J. O. Lee,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Classes and Intention of Recommendation to Others by the Teaching-Learning Components of Liberal Arts Classes in Colleg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5, pp. 867-880, Jan. 2019. DOI :10.22143/HSS21.10.5.62.
- [31] Y. H. Na and I. Y. Chang, "Factors Affecting the Re-participation and Recommendation of Overseas Taekwondo Teaching Experiences of Taekwondo Major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JKEIA)*, Vol. 15, No. 8, Dec. 2021.
- [32] G. W. Bae¹ and K. M. Ryoo, "The Effect of Brand Image of Franchise Coffee Shops on Customer Visit Intentions and Intention to Recommend to Oth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ustomer Expectations,"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l. 30, No. 8, pp. 84-101, Aug. 2024. DOI : 10.20878/cshr.2024.30.8.008.
- [33] S. H. S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iewing Motivation, Viewers'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to Others for Retro Online Video Content Related to Sports," Vol. 97, pp. 119-130, Jul. 2024. DOI : 10.51979/KSSLS.2024.07.97.119.
- [34] E. Kahu, "Framing student 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 38, No. 5, pp. 758-773, 2013. DOI : 10.1080/03075079.2011.598505.
- [35] Anol Bhattacharjee,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An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MIS Quarterly*, Vol. 25, No. 3, pp. 351-370. Sep. 2001. DOI : 10.2307/3250921
- [36] P. S. Park, "Th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Culinary-Related Majors at Local Junior Colleges on Learning Immers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8, No. 9, pp. 137-148. Sep. 2023. DOI : 10.9708/jksci.2023.28.09.137
- [37]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pp. 179-211. Mar. 1991. DOI : 10.4135/9781446249215.

Authors



Pyoung-Sim Park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Food & Nutrition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1989, 1991 and 1994, respectively.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Hotel

Culinary Arts & Patisseri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She is interested in nutritional education and functional food.